

## [큐티상담칼럼] 큐티는 ‘잘 읽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라채광 집사 / 2002

큐티는 말씀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룻동안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진지하게 고백하고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큐티는 잘 읽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큐티의 핵심은 '성경읽기'입니다. 모든 묵상은 잘 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쩌면 읽는 것 자체 만으로 훌륭한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인격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만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사권이 계속 이어져야 하겠지만 첫 만남부터 관계는 시작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을 처음 보는 시간에는 조용히 읽는 것만으로 충분히 역사합니다. 말씀도 우리를 처음 만나면 탐색합니다. 우리가 낮은 사람을 보면 그럴듯이 말입니다. 말씀이 빨리 역사하지 않는다고 자꾸 내 생각을 붙여넣으면 말씀은 고유한 역사를 멈추고 맙니다.

### **'고백'할 때 역사하는 말씀**

말씀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잘 이해해야 감정적 적용이 주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연구했다고 그 말씀이 힘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서서히 우리를 다루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하기보다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 심령의 쪼개짐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심령을 고백할 때 말씀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루 생활에서 짧은 시간에 주어지는 큐티는 제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말씀은 역사를 이끌어 오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말씀을 연구해 온 위대한 선배들의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분들은 말씀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영적으로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문학의 산물로 보지 않고,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분들은 말씀은 연구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자기 자신을 연구했습니다. 나아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역사를 연구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 큐티는 '말씀을 품고 사는 것'

그러나 이런 말씀 연구는 큐티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설교, 공동체 성경공부, 개인성경공부, 큐티 등 입니다. 설교나 성경공부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분석, 연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큐티는 말씀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룻동안 나를 주장하도록 진지하게 고백하고 자신을 여는 것으로 큐티는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큐티는 성경말씀을 잘 읽는 것으로 시작해서, 잘 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생명의 삶'의 본문을 하루 백 번 읽기를 원하면서 새벽 큐티를 마쳤습니다. 시편 70편에서 모두 5절에 지나지 않은 다윗의 짧은 절규를 묵상하면서 망가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기엔 너무 소중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루 일과 중 생활의 첫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고백하는 큐티를 가져봅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